

대학이 나서야 독도를 지킨다

전문가 칼럼

고창근
독도아카데미
집행위원장

일본의 독도침탈 전략이 전 방위로 나타나고 있다. 문부와학성을 중심으로 펼치는 학생 대상의 다케시마 정신교육, 독도를 탈환 대상으로 명시한 방위청 방위백서 발간과 외무성을 중심으로 펼치는 일본령 다케시마 홍보 및 국제재판소 제소를 통한 독도의 분쟁지역화 획책 등 조직적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본중의원의 일본령 다케시마 영유권결의, 장기적 독도탈환을 염두에 둔 일본총리의 노골적 다케시마 교육 강화 지시는 우리의 독도영유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총력전에 대비해 우리는 정부뿐 만 아니라 온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으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독도영유권에 대한 걱정이나 수호 활동은 학생이나 시민단체 등 민초들이 앞장서 고군분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일본의 도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본에 전방위적 다케시마 교육 우리나라는 재정과 인력 부족

이제는 대학이 독도주권교육을 통해 나설 차례다. 약 3백만 조직구성원을 보유한 국내 대학은 지적 인프라, 재정능력, 그리고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대학에서 독도주권교육을 교양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함으로써 많은 대학생들이 우리의 독도영유권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도에 관해 논리적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차세대 대학생들이 왜곡된 역사, 왜곡된 다케시마 교육을 배우고 자란 일본의 차세대들과 당당히 맞서게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독도문제에 대해 국가의 예산투입이 없이도 일본을 이길 최상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이뤄졌던 시도별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의지 여



하에 따라 산발적,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온 초.중.고 대상 독도교육으로는 더 이상 일본의 전 방위적 다케시마 교육에 대항할 수 없다.

고종은 이미 1900년 10월 25일 칙령을 발동해 독도를 울릉도 부속도서로 편입 확정하고 조선의 독도영유권을 선포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05년 2월22일, 일본제국주의는 무주지 선점이라는 명분을 세워 독도를 일본령 시마네현에 다케시마(竹島, Takeshima)란 이름으로 편입해 버렸다. 이때 그들이 기록한 ‘Takeshima’란 이름은 1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공공 기관 및 각종 출판물의 80% 이상을 점유한 상태로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장기적 독도침탈 전략에 대비하는 대학의 소명은 무엇인가? 두 말할 것 없이 독도수호의지 양성고 일본이 전 세계의 공공기관 및 각종 출판물에 기록해 놓은 Takeshima란 표기를 우리의 Dokdo로 교정하기 위한 실천 작업이다. 출판물의 표기를 고치기 위해 출판계의 큰 고객 중 하나인 대학이 나서서, 대학의 브랜드와 권위로 전 세계의 학계, 언론계, 출판계를 상대로 장기적인 운동을 펼쳐야 한다. 해외 유학생들도 소속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서적 중 Takeshima 표기에 대해 대학신문과 인터넷을 통하여 대학당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로 교정된 서적을 반입할 수 있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회적인 이벤트성 독도 캠페인보다는 독도표기확산과 뿌리내리기 작업이 급선무다. 일본은 다양한 루트로 ‘Takeshima’ 명칭의 변경을 경계하고 관리하고 있다. 독도문제가 국제 분쟁화 되었을 때 Takeshima 표기점유 상태는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 문제에 주목하여, 필자가 몸담고 있는 독도아카데미는 2006년 창립 이래 국내대학 도서관은 물론 미국의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UCLA, MIT 등 유수의 대학도서관과 보스턴, 뉴욕 등 공공도서관에서의 Takeshima 표기 상태를 직접검색하고 눈으로 확인하여 그 실태를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12년 4월, 모나코에서 열린 IHO 국제수로기구 총회에 독도 아카데미 교수진들이 참석해 일방적 Sea of Japan 표기결의를 저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 역시 당시 내외신 언론을 장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시민단체의 역할과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한다. 문제를 이산화하고 선도할 수 있어도 의제를 꾸준히 유지하고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옮기기에 재정과 인력이 매우 빈약하다.

독도아카데미가 10여 년간 국비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배출한 “독

도아카데미” 수료생들은 5천여 명에 불과하다. 예산의 제약과 비영리 시민단체가 갖는 태생적 한계성 때문이다. 반면 국내 대학생은 약 3백만 명에 달한다. 이제는 대학이 나서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이제 10년간 지속해 온 독도교육에 대한 공신력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뜻있는 대학, 의식 있는 대학과 손잡고 독도교육의 커리큘럼화, 공론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독도주권교육을 교양 또는 선택과목으로 대학당국이 채택 할 수 있게 본 단체가 소유한 모든 교육적 자산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에서 ‘독도 주권 교육’ 필요

우리는 대학캠퍼스에 새로운 독도교육의 바람이 불게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독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대한제국의 멸망과정과 일본의 독도침탈과정, 독도의 전략적 가치, 독도영유권의 국제법적 근거, 일본은 왜 독도를 노리는가?, 일본의 독도침탈 6단계 전략 등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이 캠퍼스에서 우리 대학생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독도는 대한독립의 상징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없다.” 선각자들의 경구를 되새기며 우리 경희대 학우들의 독도사랑, 독도교육운동이 온 대학가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참여마당

김윤모
(국어국문학 2016)



살을 에는 추위 일지라도 작은 온기에 감사 하길

영하로 뚫고 한없이 내려가는 겨울의 냉기는 나를 괴롭게 한다. 숨만 쉬어도 내 몸 안의 숨결을 액화해버리는, 따뜻한 숨을 이내 차가운 입김으로 만들어 버리는 겨울이 얄밉다. 고요한 주변에 온 세상에 나만 있는 듯, 침전하는 분위기의 눈이라도 오는 날은 너무 좋지만 이내 곧 찬 바람이, 아니 ‘칼바람’이 내 온 얼굴을 긁고 지나간다. 피부 속 세포까지 찢어 버릴 것 같은 그 찬기가 너무 싫다. 나를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한다. 코와 귀는 점점 빨갛게 변하고 코에서 자꾸만 흐르는 콧물은 내가 콧물인지 콧물이 나인지 알 수 없게 할 정도로 혼을 쏙 빼놓는다. 눈알까지 차가워진 채 냉동실의 동태가 이런 기분일까 하는 심정으로 겨우 현관문을 연다. 그 순간, 따스한 공기가 나를 온몸으로 반겨준다. 그 온기는 안경의 김 서림으로 가시화되고, 온기에 대한 사랑스러움이 극대화 된다.

김 서림은 나에게 감사 그 자체이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약 13도 이상 차이 나기 시작하면 안경에 김이 서린다고 한다. 불과 몇 초 전 바깥의 나와 집에 들어온 내 온도 차이가 무려 13도 이상이라는 것이다. 내가 방금 전의 나보다 13도 더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다. 안경에 서린 김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고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그 이슬 하나하나를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일 때 내 행복감도 극대화 된다.

온기는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 그 온기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감쌌던 것이고, 동생을, 집 안의 화초를, 우리 집 금붕어를 품어주고 내 방의 다육이까지 따뜻하게 안아준 다음에야 비로소 나에게 온 것이다. 나에게 따뜻함을 전해준 온기는 온전히 나만의 온기가 아니다.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다.

가끔 찬바람이 심한 너무 추운 날, 거리를 걷다 잠시 바람을 피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 안쪽으로 들어가곤 한다. 정류장의 칸막이에 의지하여 임시방편으로 바람을 피해보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는다. 그곳에서 있으면 추위를 피할 안식처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되새기곤 한다. 현관문만 열고 들어서면 온기가 맞아주는 집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인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한다.

지금 내 현실과 이 세상이 살을 에는 추위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한기를 녹여줄 온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막상 온기를 찾아 나서기보다는 한기에 불평, 불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추위가 어디서 왔든 어느 정도로 춥든 한파가 찾아온 이상 내가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온기를 찾아내어야 한다.

“주변의 것에 감사하세요.”

너무나도 뻔한 말이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의식적으로라도 감사를 내 가슴과 내 머리에 새기며 내 걸음 걸음을 뒤돌아보면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 꿈 꿔 일어붙은 땅도 서서히 녹이는 힘이 아닐까 싶다. 춥다고 웅크리지만 말고 주위의 것에 집중하여 작은 소중함을 찾아보자. 그러면 내가 내쉬던 한숨에는 어느덧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 것이다. 내가 내쉬는 숨이 나를 녹여줄 온기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1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